

# 신앙운동과 직업소명

## 1. 기독교대학의 비전

### 1)기독교대학이란?

백석학원의 사명선언문은 “백석학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는 기독교 대학을 추구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 대학’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기독교 대학을 논할 때 그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독교대학과 함께 비교하며 논의되는 개념이 ‘미션스쿨’이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미션스쿨(Mission School)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처음 개발하고 운영하였던 학교이다. 이 학교들은 종종 새로운 교사와 종교 지도자를 배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의도로 설립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션스쿨이 내세우는 주요한 목표 중 하나는 ‘전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세운 학교들은 대부분 이러한 전도의 필요성 때문에 설립된 미션스쿨들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미션스쿨들을 일반 세속 학교들과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갔다. 그리고 사회의 다변화와 더불어 학교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배출하는 직업준비학교로서보다는 교양대학으로서의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전도와 같은 일차적인 사역은 지역 교회나 전담 선교기관에 맡기고, 학교는 기독교적 인격을 갖추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문화적 사명을 감당할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전념하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목표의식을 갖고 시작된 것이 기독교대학이다.

미션스쿨과 기독교대학은 그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복음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비전이나 목표, 추구하는 방법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션스쿨은 초등교육이든 중등교육이든 고등교육이든 상관없이, 전공과 전문성이 어떠한 학생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데 그 일차 목표가 있다고 하겠다. 그와 달리, 기독교대학은 직접적인 복음전파보다는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기독교적 인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기독교적 지도자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가 내린 기독교대학의 정의는 적절해 보인다. 기독교학술동역회는, 기독교대학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고, 학문의 제 분야는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연구임을 인식하여, 모든 학문을 기독교적 세계관 위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대학”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에 맞는 기독교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독교대학의 이념 곧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대학에 속한 모든 구성원 즉, 경영자와 교수와 직원 그리고 학생이 이 이념에 동의하여야 하며, 어떠한 환경적 제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려는 굳건한 의지가 필요하다.

## 2)백석학원의 설립취지와 정체성

학교의 설립취지와 정체성은 처음 학교를 세운 설립자의 설립정신과 사상에서 비롯된다. 백석학원의 명문화된 설립취지는 다음과 같다. “백석학원의 설립, 백석학원의 존재이유는 이 땅에 대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은 다른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대학이 다른 대학과 동일한 교육을 한다면 세상의 수많은 대학에 또 하나의 대학이 더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바꾸어 가는 일입니다. 도덕교육, 윤리교육만으로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설립취지에 언급된 핵심 개념들은, ‘사람다운 사람’,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립취지는 우리 삶과 교육의 유일무이한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백석학원의 정체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백석학원에 속한 모든 대학들은 기독교대학이다. 우리 학원은 기독교의 개혁신앙을 기초와 원리로 삼아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건전한 인성교육을 담당하며, 더 나아가 그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모든 학문적인 작업을 하며 학생들을 양성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학이다.”

백석학원의 정체성에 나열된 핵심 개념들은 ‘기독교대학’, 개혁신학을 근간으로 한 ‘개혁주의생명신학’, ‘복음전파’, ‘인성교육’, 개혁주의생명신학에 근거한 ‘인성교육’과 ‘학문활동’, ‘그리스도인 지도자 양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학’이다.

백석학원의 설립정신과 정체성은 명문화된 설립취지만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학이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대학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학’, 다시 말해, ‘대학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대학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대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양승훈 교수가 바람직한 기독교대학상을 설명하면서, 모든 기독교대학과 대학인의 자세야야 한다고 강조한 ‘신전의식(Coram Deo)’이, 백석학원 설립자의 정신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또한 “백석학원은 복음을 전하는 학교, 교육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교육, 학문을 하되 신앙을 기초로 하는 학문,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도자를 배출하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백석학원은 앞서 분류한 ‘미션스쿨’과 ‘기독교대학’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석학원은 미션스쿨로서 전도도 하면서 동시에 기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양면적 목표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양면적 성격은 백석학원의 발전과 양적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해온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학이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이상적인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두 목표를 동시에 구현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서구의 기독교대학들이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 규모가 커지고 구성원의 수가 많아질 때, 구성원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어려워지고, 학교가 설립초기에 가졌던 이념과 가치를 동일하게 공유하기 힘든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기독교대학의 이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동일하게 확고부동한 신념을 공유하고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헌신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석학원은 그로 인한 열매와 보람과 영광스러움이 지대한 것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이 두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백석학원의 현주소요, 이것이 백석학원이 가진 정체성의 독특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통해 학원이 알맞은 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독교대학이 세월이 흐르고, 구성원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기독교대학으로 남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입각한 교회를 세워가려면 대학의 설립정신과 취지를 굳건히 붙잡는 충성심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최재건 교수의 지적대로, 대학의 주인은 대학의 이념, 즉 설립취지와 정체성이다. 그는 말하기를, “세월이 지나면 학생도 대학을 떠나고, 교수도 대학을 떠나고 이사장도 다 대학을 떠난다. 그러나 오직 대학의 이념만은 계속되어 그 가치를 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대학이 그 대학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계승하며, 굳건히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2. 신앙운동과 직업소명

정체성과 소명의식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치된 정체성과 소명의식이 역동적인 공동체의식을 배양하고, 공동체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만든다. 목표가 어떠한지 간에, 사역의 열매를 효과 있게 맺으려면 기독교대학의 구성원이 학교의 설립이념과 정신, 그리고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협력하는 소명의식이 요청된다.

### 1) 구성원의 영적 자질

여타 교육공동체가 다 그러하듯, 기독교대학은 법인, 교수, 직원, 학생으로 구성된다. 조용훈 교수의 지적대로, “기독교 대학을 일반대학과 구분 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인적 요소이다. 대학당국이 아무리 좋은 기독교 교육이념을 외친다 해도, 그것에 동조하는 학생이나 그러한 비전을 소명으로 알고 헌신하는 교수나 직원이 없다면 공허한 구호에 머물고 말 것이다.” 조용훈 교수는 칼 야스퍼스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대학의 운명은 대학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자신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독교대학의 구성원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중생의 체험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성경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답이며,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임을 믿는 신앙의 소유자여야 한다. 이것이 개혁주의생명신학이 강조하는 ‘신앙운동’의 핵심이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이 강조하는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며, 그 절대주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주인으로 인식하면서, 모든 역사와 영역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적용할 줄 아는 신앙이어야 한다.

아더 흠즈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서는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인간이 알고 추구해온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 물리적인 질서에 대한 진리,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진리,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놀라운 순간에 경이로워했던 것들에 대한 진리도 그 분은 완전히 알고 계신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것을 ‘모든 진리는 그것이 어디서 발견되든지 하나님의 진리이다’(All truth is God’s Truth)라고 요약했다.”

이것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강조한 ‘하나님의 영역주권’사상과 일맥상통한다. 카이퍼는 인간 사회가 다양한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영역들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고유의 주권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국가, 교회, 학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교육, 스포츠, 다양한 세계관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유해무 교수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주권은 경건한 골방에만 머물지 않으며, 구원받은 자는 세계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큰 목적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한 사상을 명료하게 표현 한 것이,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재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 치도 없습니다.”라는 말이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의 구성원들에게는 신앙과 학문, 신앙과 교육, 신앙과 문화, 신앙과 행정을 독립된 것으로 개별화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할 줄 아는 역량이 요구된다. 양승훈 교수는 이 개념을 교수에게 적용하여 설명하기를, “교수는 학자이면서 그리스도인이기도 한 사람(Christian and Scholar)이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학문하는 사람(Christian Scholar)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기독교 정신과 학문하는 정신을 등위접속사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체계와 가치 내에서 학문을 재조명, 재구성, 재창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개념은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기독교대학의 직원은, 직원이면서 그리스도인이기도 한 사람(Christian and Staff)이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행정을 하는 직원(Christian Staff)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의 구성원은 법인과 교직원만이 아니다. 학생도 여기에 포함된다. 조용훈 교수가 쓴 글에, “대학당국이 아무리 좋은 기독교 교육이념을 외친다 해도, 그것에 동조하는 학생이나 그러한 비전을 소명으로 알고 헌신하는 교수나 직원이 없다면 공허한 구호에 머물고 말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그것에 동조하는 학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는 다시, “기독교대학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기독교적 대학문화를 발전시키려면 좋은 기독교 학생이 많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교수들이 많다 해도 그것에 동조하고 따르는 학생이 없이는 결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기독교대학은 신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탁월한 학생비율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 물론 기독교

교인 학생 비율이 높다고 자동적으로 좋은 기독교대학이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대학에서처럼 기독교인 학생 비율이 30퍼센트 남짓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는 기독교 교육이념의 실현과 기독교적 대학 분위기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학업에 임하며 미래를 설계할 그리스도인 학생(Christian Student)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주의 계열인 휘튼(Wheaton)대학이 대다수 학생들이 기독교인이이며,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지역교회 주일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2005년 한동신문이 낸 기사, “기독교대학의 채플이여 닫힌 마음을 열라”에 따르면, 미국의 칼빈(Calvin)대학은 구성원 100퍼센트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아주사 퍼시픽(Azusa Pacific) 대학교의 경우, 부총장 박성민 박사에게 문의했을 때, 기독교인 학생의 비율을 어렵잡아 95퍼센트 이상일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기독교인 학생의 비율을 높이는 길은, 처음부터 기독교인을 뽑든지, 아니면 입학한 비기독교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뿐이다. 첫 번째 방안은 현재 교육여건 상 불가능해보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따라 복음화에 전력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백석학원이 바람직한 기독교대학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백석학원의 정책적 상위개념은 기독교대학을 만드는 일이고, 전략적 선제개념은 전도이다. 전도가 양육보다 우선하는 개념이라는 말이다. 물론 전도하여 회심한 학생을 온전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사역 역시, 바람직한 기독교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놓쳐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사역이다. 이 양면적 사역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이 몹시 지난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감당해가야 한다.

## 2) 구성원의 소명의식

어떤 일을 하도록 맡겨진 임무가 사명(使命 mission)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 받는 것이 소명(召命 calling)이다. 따라서 소명에는 부르신 이가 있음을 전제한다. 우리는 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따라 학교의 임용절차를 거쳐 학교의 구성원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 역시 하나님의 일이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학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는다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의 구성원은 이와 같은 소명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설립자 장종현 박사는 백석학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힘주어 강조한다.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관련 단체가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대학,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대학은 기독교 대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서 사역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영적 인식과 소명의식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 대학인 우리 대학의 교직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무에 대하여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각기 맡은 직무를 소중히 여기며,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강렬한 애정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며 선한 열매를 맺으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도 설립자 장종현 박사는 ‘직무에 대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맨 먼저 강조하고 있고, 뒤이어 ‘자기 분야의 전문성’, ‘업무에 대한 애정과 열정’, ‘상호존중과 협력’, ‘겸손한 자세’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

대학은 공동체이다. 아더 흠즈의 표현대로, “기독교대학은 지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이 기독교적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이다.” 아더 흠즈는 묻는다. “무엇이 공동체를 창조하는가?” 그리고 답하기를, “공동체는 공동의 느낌이 아니라 가치와 목적과 공통된 과업에 의해 창조된다.”고 말하면서, “공동체적 감정은 학생, 교수, 행정가들이 모두 그들 공통의 교육적 과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때 운택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기독교대학은 학문공동체인데 동시에 예배공동체이다. 물론, 아더 흠즈의 말대로, 기독교대학은 지역교회도 아니고, 사교클럽도 아니고, 봉사단체도 아니며 직업훈련학교도 아니다. 기독교대학 공동체를 창조해 내는 것은 바로 교육적 과업이다. 교육적 과업이 기독교대학의 전반적인 목적이고 존재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대학은 신앙공동체이다. 이 양자는 분리될 수 없다. 오히려 신앙이 학문에 그 방향을 제시하고 의미를 주기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대학이 예배공동체로서 영적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애쓰는 것은 마땅한 임무라고 할 것이다.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 발전하려면,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공공의 이해관계가 발생한다. 공동체가 공통의 가치를 보존하거나 고무하거나 전수하기 위하여, 혹은 공동체의 과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알맞은 방법으로 조직을 운영해가면서 그 방법에 맞는 제도들을 개발하게 된다. 그 결과 공동체는 공공선과 설립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율과 절차를 갖게 된다. 때로는 그러한 규율과 절차가 개인의 삶을 단편화 내지 파편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선한 사람들이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도모하고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불가피한 구조 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는 한계가 인간 세상에는 내재한다. 그럴 경우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군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긍휼한 마음을 갖고, 스스로 공동체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아더 흠즈의 권유대로, 개개인은 “자기가 속해 있는 기구로부터 고립하거나 혹은 상반되는 목적을 갖고서는 자기의 목표를 성취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하며, 아울러 그러한 규율이나 법을 만드는 사람은, “그러한 규율과 법은 개인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증진시켜주면서, 동시에 그 기구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확립되어야” 함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설립자 장종현 박사께서 우

리에게 권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의 비전과 열정을 새롭게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 학교를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둘째, 모든 일들을 서로 의논하여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학교가 필요로 하는 좋은 일꾼들입니다. 셋째, 모든 교직원들이 학교의 모든 일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학,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학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 학교는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훌륭한 기독교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직원들이 하나님을 우리 학교의 경영자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부름 받았다는 확고한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학교를 크게 붙들어 사용할 것을 확신합니다.”

### [참고문헌]

- 장종현, 『백석학원의 설립정신』(백석정신아카데미, 2014)  
장종현, 『백석학원의 정체성』(백석학술원)  
장종현, 『생명을 살리는 교육』(백석정신아카데미, 2013)  
양승훈, 『새로운 대학』(CUP, 1993)  
조용훈, 『기독교대학』(한국장로교출판사, 2009)  
이숙종, 『기독교 대학과 교육』(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최재건, “한국 군대 기독교 대학의 설립과 이념에 관한 연구”, 『한국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백석기독교학회, 2002): 12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기독교대학위원회 편, 『기독교대학 교육의 현실과 이상』(대한기독교교육협회, 2008)  
아더 흘즈, 박진경 역, 『기독교대학의 이념』(CUP, 1992)